

## 노년과 젠더의 문화정치학

- 박범신 노년소설 『은교』의 경우

정 미 숙\*

### 차 례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욕망의 윤리, 공존의 문화정치 |
| II. 친밀한 거래, 불온한 '노년의 역사' | V. 나오는 말             |
| III. 이원적 젠더구도, 파괴와 저항    |                      |

### 국문초록

박범신의 『은교』는 노년소설로 노시인 '이적요'의 소외와 죽음을 그리고 있다. 이적요는 노년에 이르러 그간의 자신의 구성된 이미지를 떨치고 새로운 노년의 역사를 감행하고 꿈꿀 수 있을 것이라 믿었으나 실패한다. 다양한 문화능력을 갖춘 대시인 이적요는 제자에 대한 연민과 세상의 허위를 깨부수려는 호기로운 결단으로 제자를 표절시켜 등단시키는 범죄를 행한다. 이는 외로운 독거노인인 이적요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제자와의 '친밀성의 거래' 관계를 그 기저에 깔고 있는 것이다. 하나, 이적요의 과시적 시혜는 경계 무화의 새로운 폭력을 불러들인다.

\* 부경대학교 강사

‘은교’가 매개되며 욕망에 사로잡힌 ‘서지우’의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두 사람은 스승/제자, 아버지/아들, 시혜자/수혜자의 친밀한 관계에서 주인/노예, 정신/육체, 늙은이/젊은이, 가진 자/못가진 자인 대립적 관계로 변질된다. 젊음과 성적 향유라는 일방적 젠더 논리로 젊음/늙음, 서지우/이적요, 향유자/불능자, 아름다움/추함으로 재단한다. 자신의 정체를 이적요에 의지하고 있는 서지우는 그를 ‘늙은이’로 부정하고 그의 원고를 훔쳐 발표하는 범죄를 저지른다. 이에 이적요는 ‘치녀’라는 탈이데올로기 담지체를 호출하고 노인의 노회함을 다해 저항한다.

이적요의 소외와 훼손이 서지우의 독단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집 안/밖을 비롯한 도시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상식’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 이는 공간적 메타포로 확장, 재현되는 데 생활세계 전반에 도사린 노인배제와 폄하의 이데올로기인 문화적 폭력임을 알게 한다. 이적요의 서지우에 대한 살해 의도는 이 모든 ‘범죄자들’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욕망의 윤리를 재고하고 남녀노소가 공존할 문화정치의 해법을 모색하게 한다.

주제어 : 박범신, 노년, 젠더, 공간적 메타포, 욕망, 윤리, 문화정치

## I. 들어가는 말

박범신의 소설 『은교』는 소설적 주목에 이어 영화화 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는 소설 연구에도 영향을 미쳐 『은교』는 주로 영화의 비교 선상에서 이해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대중성을 반영한 듯 연구의 관심도 이적요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심과 비판, 여성 인물 창조 의 진정성 여부에 집중된다.<sup>1)</sup> 이런 과정에서 정작 ‘이적요’가 처한 당

1) 신중곤, 「영화 <은교>의 각색 연구 - 소설 『은교』를 원천이야기로 삼은 영화

면 문제와 현실적 갈등의 맥락에 대한 관심과 해석이 충분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박범신 소설 『은교』는 ‘노년소설’이다.<sup>2)</sup> 박범신은 자의식 강한 문제적 노인 ‘이적요’를 통해 “노인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문제와 갈등을 서사골격”으로 하여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심리와 의식의 고유한 국면을 천착”한 노년소설<sup>3)</sup>을 완성했다. 이에 노년에 처한 주인공인 이적요의 소외와 실존의 결단, 그가 직면한 제반 문제를 섬세하게 진단하지 못한다면 텍스트 해석의 심각한 오류와 왜곡의 과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은교』는 세 사람, ‘이적요’와 ‘서지우’ ‘Q변호사’의 시점으로 구성된다. 소설은 이적요가 남긴 ‘노트’와 서지우가 남긴 ‘노트’, 그리고 이를 읽고 적절히 해석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사건 이후의 정황을 매개하는 ‘Q변호사의 시점’이 교차되며 서술된다. 소설은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인공인 ‘이적요’의 시점이 16장이고 ‘서지우’의 시점으로 5장, Q변호사의 시점이 6장으로 분배된다. 소설의 프롤로그를 시인이 이끌고, 변호사가 에필로그를 닫는데 그 제목 또한 ‘시인이 마지막 남긴 노트’로 같다. 『은교』는 두 남성이 남긴 ‘노트’를 재구성하여 배치한 소설적 구성

---

<은교>의 변형적 각색 방식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8, 민족어문학회, 2013. 8. 유영희, 「영화 “은교”를 보는 한 가지 시선- 이적요의 소망, 세상에 굴복하고 삶이 무너지다」, 『사고와 표현』, 5권 1호, 한국사고와 표현학회, 2012.

이채원, 「(대중)소설과 (대중)영화가 당대의 사회규범과 소통되는 방식: 소설 『은교』와 영화 <은교>를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13권 4호, 문학과 영상학회, 2012.

홍유진, 「박범신 인터뷰 - 늙어도 젊은 것과 젊어도 늙은 것」, 『인물과 사상』 172호, 인물과 사상사, 2012.

김은혜, 「영화 <은교>에 나타나 에로티시즘」, 한국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글로벌 문화콘텐츠학과, 2013.

이미화, 「박범신 『은교』에 나타난 노년의 섹슈얼리티 연구」, 『우리문학연구』 40집, 우리어문학회, 2013.

2) 텍스트는 박범신, 『은교』, 문학동네, 2010.

3) ‘노년문학’의 개념적 정의로,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백남문학사, 1996, 174-175쪽.

에서 알 수 있듯이 ‘늙은 남성’ 이적요와 ‘젊은 남성’ 서지우의 권력구도를 재현하고 있는 소설이다. ‘은교’와 ‘Q변호사’의 역할은 두 사람 사이에 드러난 사건의 진실을 보완하고 중개하는 데 있다.

이적요와 서지우는 스승/제자, 아버지/아들, 늙은이/젊은이 등으로 구분되는 남성 젠더의 대결구도로 맞선다. 이적요는 실제적인 주인공이나 늙고 병든 노인인 까닭에 그의 위치는 ‘타자’인 듯 위태롭다. 남다른 ‘문화능력’과 고유한 개성을 가진 그는 무차별적인 노인 배제의 금줄과 소외의 장벽에 갇혀 있다. 이에 필자는 타자로 몰려 우울과 죽음의 경계를 넘은 이적요의 소외와 살해의지를 ‘노년’과 ‘젠더’의 ‘문화정치학’이란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소 생소한 용어인 ‘문화정치’는 “문화적인 것을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행위”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도록 설정된 경계, 사회적 삶의 당연한 부분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행위이자 그 경계를 뛰어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가 권력으로 부터의 상대적 소외, 대항헤게모니(counter-hegemony), 그리고 일상성의 정치를 논할 때 정치는 사회적 삶의 당연한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는 행위이자 그 경계를 뛰어넘는 행위가 된다. 문화정치는 의미에 대한 경합으로 이는 경계에 대한 경합이며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경합이다. 이처럼 문화적인 것이 정치적이라는 사고는 문화가 단일한 것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을 거부하고 문화의 복수성을 받아들임으로써 논리적으로 도출된다.<sup>4)</sup>

박범신의 『은교』를 텍스트로 한 ‘노년과 젠더의 문화정치학’은 생물학적 늙음을 기준으로 한 일방적 노/소 구분과 그에 따른 배타적 젠더 인식이 우리 일상의 삶 전반에서 작동하는 폭력적 ‘문화’임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정치 감각을 갖게 하는 데에 있다. 텍스트의

4) 돈 미첼, 류계현 진종현 정현주 김순배 율김, 『문화정치 문화전쟁』, 살림, 2011, 354-355쪽.

서사과정을 따르면서 진정한 욕망의 윤리를 깨닫고 문화정치의 공존적 해법을 고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타자인 노인의 현실을 직시하고 배타적인 권력관계와 폭력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노년의 역사’를 그려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 II. 친밀한 거래, 불온한 ‘노년의 역사’

『은교』의 주인공 이적요는 ‘고요하고 쓸쓸하다’는 뜻인 그의 필명 ‘적요(寂寥)’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곧은 정신, 높은 품격, 고요한 카리스마’ 등으로 표상되는 고고한 이미지의 거물급 시인이다. 젊은 시절 동료들의 배신으로 감옥 생활을 십 년간 한 그는 지식인 사회와 세상의 ‘소음’에 환멸을 느껴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시세계에만 경주하여 시인으로 성공한다. 일테면 ‘적요’라는 그의 필명은 세상을 향한 시인의 통렬한 발언인 셈이다.

『은교』는 노시인 이적요가 그간의 고고한 이미지에 반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과정과 이후를 담고 있다. 결혼한 적도 없고 가정을 일군 적도 없는, 독거노인인 이적요는 수년 전부터 동거하다시피 하는 수족 같은 제자 서지우의 정식 등단을 위하여 자신의 미발표 원고인 소설을 서지우의 이름으로 발표한다. 서지우는 노쇠한 이적요를 섬기고 돌보며 며슴이자 집사, 아들 보다 나은 아들로 그의 곁을 지킨다. 이적요는 서지우의 순정과 충직, 순수성을 ‘사랑’했고 소심하고 반역을 모르는 ‘멍청한’ 그를 신뢰한다.

이적요가 스스로를 허물고 이같은 범죄를 제안한 것은 서지우에 대한 연민과 애정, 무한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 이적요가 제대로 키우지 못한 아들 ‘얼’과 서지우에 대한 생각을 연이어 하면서 이러한 일을 감행하는 대목에서도 그의 진정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이적요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만사가 뒤엎켜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노년’에 들지 않았다면,<sup>5)</sup> 그리고 서지우와 가족으로 친밀한 거래 관계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소설 『심장』은 영화 <비터 문>의 이야기 구조를 패러디해 한국판 포르노그래피로 살짝 바꿔 만든 것이었다. <비터 문>은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1993년 작으로 엠마누엘 자이그너와 피터 코요테, 휴 그랜트가 주연한 영화였다. 성적 욕망이 어떻게 사랑을 파멸로 이끄는지 보여주는 영화로는 수작이라 할만 했다. (중략) 이야기 구조를 영화 <비터 문>에서 가져와 교묘하게 변형시켰기 때문에 실제 『심장』을 쓰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다. 나는 실제로 겨우 한 달 만에 소설 <심장>을 완성했다. (62-63쪽)

“문학 앞에 붙는 어떤 관형사도, 알고 보면 층위를 나눠 세우고 패를 가리려는 수작이야. 우리 문학관 너무 협소하고 못돼먹었어. 양반 상놈을 아직도 가르려는 패거리가 많은 게 이 동네거든. 자네는 양반을 사교난 필요한 돈을 얻으면 되지.” 우리 한 번, 문학관을 갖고 돌아보세, 라고 마음속으로 나는 덧붙였다. (67쪽)

이적요의 범죄는 서지우를 스승의 소설을 ‘표절’한 작가 ‘도둑놈’으로 만든 것에 있다. 표절의 혐의는 이적요도 있다. 이적요는 『심장』을 로만

5)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년에 대해 냉혹한 태도를 취했다. 그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노인들은 모든 악을 대변하고 있다. 노인들은 탐욕스러우며,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한 우정을 모른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만을 찾는 그들은 이득이 되는 것에만 몰두한다. 그들에게 사랑이란 실증으로 인해 사라져 버리거나 습관적인 것일 뿐이다. 그들은 성격도 까다로워서 진정한 우정이 생겨나는 일은 요행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또 『수사학』에서 노인들은 소심하고 머뭇거리고 의심이 많고 인색하고 겁이 많고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비관적이고 수다스럽고 탐욕스럽고 침울하고, 오랜 세월을 살면서 여러 번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했으며,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만사가 뒤엎켜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노인들의 결점을 강조한다. 조르주 미노아, 박규현 김소라 옮김, 『노년의 역사』, 아모르문디, 2010. 130-131쪽. (‘강조 필자’)

폴란스키 감독의 <비터 문>을 ‘살짝 비틀어’ ‘교묘하게 변형’하여 한국 판 포르노그래피로 만든 것이라 한다. ‘패로디’와 ‘표절’의 차이는 원작의 공개 여부이다. 패러디가 대화를 통해 원작과의 차이효과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 살짝 비튼다는 것은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표절에 가깝다.<sup>6)</sup> 그가 밝혔듯이 원작에 대한 아이디어, 구조가 있었기에 그것을 변형한 소설 창작이 한 달 만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범죄행위의 결과인 이 ‘소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뚜렷한 명분을 갖는다. 서지우의 등단과 더불어 문단의 장르문학 폄하와 편 가르기의 위선을 깨부수는 데 있다. 또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기만적 성의식을 폭로하는 것도 한 이유이다. 이처럼 견고한 ‘위선’을 깨부수는 작업인 까닭에 이적요는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노인언어의 특징인 ‘허세’와 ‘생략’<sup>7)</sup>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는 분명 협소한 못돼먹은 ‘문학관’을 ‘재미있는 놀이판’으로 갖고 노는 것에 비판적 의미를 둔 것이다. 그가 문단 비판에 앞서 자신의 구성된 이미지, 허위적 존재인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대목도 주목을 요한다. 그는 ‘성적 욕망’을 다룬 자신의 불온한 소설을 통하여 자신과 세상 속 위선의 허를 찌르며 그 위에 자신의 발화를 실은 새로운 ‘역사’를 감행하고자 한다.

6) 표절(plagiarism)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방법, 혹은 글로 표현된 말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가져옴으로써 그것들이 이러한 기만행위를 하는 자의 것으로 간주되게 할 의도를 가진 행위”를 말한다. 147쪽. 패러디(parody)는 패러디하는 작품을 폭넓게 인용하고 그 작품 고유의 스타일과 주제를 베끼는 것이지만 표절은 단지 베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대부분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밝히지 않는다. 표절의 핵심은 숨긴다는 것으로 표절작품을 독자나 관객이 신뢰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사기로 간주할 수 있다. 리처드 앨런 포스너, 정해룡 옮김, 『표절의 문화와 글쓰기의 윤리』, 산지니, 2009, 41-63쪽. ‘차이를 둔 반복’인 패러디는 ‘비평적인 아이러니한 거리’를 생성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린다 허천, 김상구 윤여복 역 『패로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2, 58쪽.

7) 최명숙,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10쪽.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새로운 역사를 감행하고자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심장>을 관통하는 주제인 G. 바타이유의 “에로티즘, 그것은 죽음까지 파고드는 삶”이라는 주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삶을 위태롭게 한 <은교>의 복선으로 작용함도 이를 반증한다.

이적요와 서지우의 동거로 이룬 가족 개념은 서로를 위한 것이었다. 현대 사회의 한 변화로 요즘은 독신,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이다.<sup>8)</sup> ‘무연사회(無緣社會)’라 할 수 있는 현실에서 독거노인은 혼자 살다가 혼자 고독사할 위험과 범죄나 죽음에 대한 불안에 노출된다.<sup>9)</sup> 가정을 꾸리지 못한 독거노인인 이적요는 정신적 능력은 여전하나 여러 질병에 시달리며 몸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있다. 서지우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의 돌봄 없이는 생활이 곤란할 지경이다. 이적요에게 서지우는 아내의 외도로 이혼 당하고 40이 되도록 제대로 등단조차 하지 못한 제자로 연민이 물리는 무력하고 거세된 남성에게 가깝다. “선생님 곁에 있지 않으면 …… 저, 죽은 목숨입니다.”라고 되뇌는 서지우의 절절한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거세된 남성이미지로 유능한 여성을 수행하며 그의 곁에 머문다.

이적요와 서지우는 늙음/젊음, 유능/무능, 정신/육체, 남성/여성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한다. 정서적인 만큼이나 경제적인 단위인 ‘성차별적 공간(gendered space)인 가족’<sup>10)</sup> 사이에서 벌어진 두 사람의 공모는 일종의 ‘친밀성의 거래’로 온당한 것이 아니다. 친밀한 거래는 다양한 유형의 커플에서 이루어지는 데 경제적인 거래인 친밀함은 결코 삶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비밀 공유, 충고, 개인적인 감시, 강간과 같은 강제적인 개입을 포함하기 때문이다.<sup>11)</sup>

8) 슬람미스 사하르 외, 팻 테인 엮음, 안병직 옮김, 『노년의 역사』, 글항아리, 2012, 436쪽.

9) NHK 무연사회 프로젝트 팀, 김범수 옮김, 『무연사회』, 용오름, 2012, 136쪽.

10) 돈 미첼, 류제현 진중현 정현주 김순배 옮김, 『문화정치 문화전쟁』, 살림, 2011, 295쪽.

친밀성의 거래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두 사람의 배려와 돌봄의 가족관계는 서지우가 문학적 성취를 얻을 수 있을 때에만 지속가능한 것이다. 이적요가 자신의 범죄를 서지우에게 주는 “새경”이라 한 것은 둘의 관계를 압축하는 적절한 단어라 할 수 있다. 이적요는 범상치 않은 ‘문화능력’을 갖춘 자이다. 대성한 시인으로서 소설, 희곡, 수필, 칼럼 등 여러 장르에 걸쳐 미발표 원고를 보유하고 있는 권위자이다. 그는 자신의 미발표 원고로써 단박에 제자를 인기작가의 반열에 올려놓는 실력자이다. 서지우가 발표한 세 권의 소설이 모두 이적요가 쓴 것이라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것이다.

이적요를 선명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일찍이 보부아르는 노년의 이미지만 불확실하고, 선명하지 않으며 모순적인데 이는 ‘노년’을 읽는 관점이 불완전한 진리일 뿐이며 관념론자들은 그들 계층의 이익에 합당한 노년의 개념들을 만들어낸다<sup>12)</sup>고 간파한다. 이적요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시혜적 행위가 수혜자 서지우에게 마저 편 의적이고 왜곡되게 해석된다. 이적요의 시혜적 위반은 또 다른 경계 넘기, 무차별적인 폭력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된다.

11) 비비아나 A. 젤리아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옮김, 『친밀함의 거래』 에코리브로, 2009, 140-141쪽.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젠더 또한 지역 경제 내의 호의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여성은 친족이나 친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선물 같은 거래나 교환으로 인식되는 반면, 남성은 친구나 친족들로부터도 보수를 받도록 ‘허용’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다. 146쪽.

12) 보부아르는 ‘노년’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아주 다른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노년이란 어떤 사회적 범주를 가리키며, 그 범주는 상황에 따라 다소 가치가 인정된다. 둘째, 노년은 각 개인의 특이한 운명, 즉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가리킨다. 첫 번째는 입법자들, 도덕가들의 관점이며, 두 번째는 시인들의 관점이다. 이 관점은 근본적으로 대립한다. 둘 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불완전한 진리일 뿐이며 관념론자들은 그들 계층의 이익에 합당한 노년의 개념들을 만들어낸다. 이에 노인에 관한 역사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이다. 역사는 순환성을 내포하고, 수정된다. 시몬 드 보부아르, 홍상희·박혜영 옮김, 『노년』, 책세상, 2002, 119-120쪽.

그가 호기로운 의도를 갖고 서지우를 통해 다시 쓰고자 한 ‘노년의 역사’는 자신의 문화능력 혹은 권위를 지나치게 남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하다. 결국 이적요의 ‘선물’은 ‘장물’로 전락하고 서지우의 반복되는 표절로 권위의 무화와 무차별적인 폭력을 야기하는 빌미가 된다.

### Ⅲ. 이원적 젠더구도, 파괴와 저항

서지우는 인기작가의 부와 명성을 얻고, 이적요는 인세를 나눠 갖는 두 사람의 원활한 거래관계는 청탁된 원고를 해결하지 못하는 서지우의 무능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서지우는 점점 자신을 속이는 자기도 취적인 성격으로 변해가며 과시적 성공에 집착한다. 노예의 의식화는 그의 의식 모델을 주인의 개인성 이미지 위에서 발견하는 데 주인의 개인성은 상위의 단계로 넘어가기를 열망하는 개인성들의 적인 동시에 객관적인 중재자이다. 이적요에 들러 사는 서지우는 열등감과 시기심 사이에서 분열한다. 이적요와 서지우는 스승/제자, 시혜자/수혜자, 아버지/아들의 친밀한 위계적 관계에서 주인/노예, 정신/육체, 늙은이/젊은이, 가진 자/못가진 자의 대립적 갈등관계로 변질된다.

이적요를 흉내내며 사는 서지우의 기만적인 삶은 이적요의 도움 없이는 곤란한 것이다. 서지우는 마침내 자신의 부박한 기표(‘인기작가’)를 죽이거나 아니면 기표의 작인인 스승 이적요를 죽여야 하는 절박한 지경에 몰린다. 그는, 이적요의 존재부정을 선택한다. 제대로 된 소설을 쓸 수 없는 서지우는 이적요의 재산인 작품을 훔쳐서 발표를 해야만 그의 기표를 이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적요가 경계를 허물고 건네 준 ‘선물’은 서지우에게 이적요의 것을 통째로 탈취하려는 모반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선물은 되갚음, 보상적 정의(rendering justice)를 벗어나 비-경제적 탈-입장(an-economic ex-position)을 취할 때 기독교식으로 은혜의 개념을 발산한다. 상식적인 선물과 증여행위(giving)의 구조는 그 구조에 어떠한 종류의 지적인 압력과 보상 답례(countergift)가 있을 때는 무효화된다. 이에 테리다는 계산을 넘어서는 정의를 사유하도록 촉구하나 선물을 불가능한 것(the impossible)<sup>13)</sup>이라는 해명을 덧붙인 바 있다.

서지우는 자신이 이적요의 문학적 능력, 정신적 영역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무능한 자신을 자책하다 분열하며 마침내 스승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폄하하기에 이른다. 이적요가 『심장』 작업 도중에 경멸에 찬 표정으로 그를 ‘멍청한 놈’이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 서지우는 이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언젠가는 스승을 꺾으리란 생각을 품고 있었다. 이런 반기에 도화선이 된 것이 ‘은교’이다. 이적요와 서지우, 두 남성간의 비밀한 이차관계를 가능하게 한 은밀한 젠더공간인 이적요의 집에 은교가 들어오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은교’를 중심으로 삼자구도의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은교’가 매개된 삼자구도는 섹슈얼리티와 감각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은교’를 사이에 두고 서지우와 이적요는 갈등하며 묘한 신경전 속 경쟁구도를 형성한다. 서지우는 압도적인 이적요의 문화능력에 맞서 자신의 젊음과 육체적 아름다움, ‘육체자본’을 강조하며 이적요를 성적 향유가 불가능한 추악한 ‘늙은 남자’로 몰아간다.<sup>14)</sup> 서지우는 젊음과 성적 향유라는 일방적 논리로 서지우/이적요, 젊음/늙음, 향유자/불능자, 아름다움/추함으로 재단하며 구분한다. 서지우는 이적요가 ‘은교’에 한 눈에 매혹된 것을 간파하고 자신의 무의식에 깔려 있던 적대감을 드

13) 테드 W. 제닝스, 박성훈 옮김, 『테리다를 읽는다/ 바울을 생각한다 - 정의에 대하여』, 그린비, 2014. 84-85쪽.

14) 이상적인 남성상과 아웃사이더들은 ‘신체적인 아름다움’으로 구분되었다. 추함은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특성과도 연결되었다. 어떤 사람의 외모가 추하다는 것은 그가 정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조지 L. 모스, 이광조 옮김, 『남자의 이미지』, 문예출판사, 2004. 98-103쪽.

러내며 경계한다. 은교가 매개된 섹슈얼리티와 감각의 영역에서 그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다. 아니 상상할 수 없는 불온한 것으로 치부한다. 그의 공격성은 평소 그에게 짓눌린 ‘무력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고를 훔쳤다. 범죄다. 선생님이 치매라도 걸린다면, 차라리 그 혼한 ‘막장드라마’처럼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면 좋으련만, 하다가 몸을 떤다.  
(257쪽)

마흔이면 불혹不惑이라 했다. 불혹이고 뭐고, 내겐 내 것이라고 쌓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신명을 다 바쳐 얻고 싶었던 문학이 나를 버렸고, 아내가 나를 버렸고, 시간이 나를 버렸다. (중략) 나의 마흔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미쳐야 할 어떤 영지領地도 갖고 있지 않은 불모의 대지에 불과할 것이다. (259쪽)

서지우는 이적요의 남은 생이 길지 않고 또 그가 어차피 발표할 원고가 아니라 자위하며 이적요의 미발표 원고를 훔쳐 잡지에 발표한다. 이처럼 경계를 허무는 것은 늘 뭔가를 무효화하고 탕진하는 파괴를 함축한다. 파괴는 시간의 지속에 대립하는 교체를 빚어낸다. 지속성을 가지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분쇄<sup>15)</sup>하는 가능성을 함의하는 불온한 일이다. 파괴자 서지우는 점점 자기도취적인 성격으로 변해간다. 자기도취는 일종의 성격 파탄으로서 자기와 외부세계 사이에 타당한 경계를 확립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몰두이다.<sup>16)</sup>

이적요가 은교에게서 과거와 현재를 읽고자 하였다면 서지우는 현재와 미래를 읽는다. 서지우는 ‘은교’에게 유능한 남성이고자 한다. 서지우는 은교 앞에서 ‘유능한 작가’로 그리고 그녀를 성적으로 지배하는 ‘남성’으로서 남성다움(virtus)<sup>17)</sup>을 견지하고자 한다. 그는 지배적 재현의 감

15) 볼프강 조프스키, 이한우, 『폭력사회』, 푸른숲 2010. 283쪽.

16) 앤서니 기든스, 권기돈 옮김,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새물결, 1997. 279-281쪽.

옥에 갇힌 자이다. 이적요에게 ‘은교’는 은교이고 또 은교를 넘어선 이상적 여성이다. 이적요가 분명 욕망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한 구체적 대상인 ‘은교’는 ‘은교’이자 은교와 무관한 시원의 첫사랑이다.

은교에 촉발된 서지우의 ‘남성’은 생물학적 기준인 늙음/젊음을 근거로 이원적 젠더로 나뉜다. 이원적 젠더구도가 빛는 파괴적 속도에 저항하는 담지체로 이적요의 ‘처녀’가 자리한다. 이적요의 ‘여성’ 또한 ‘처녀/창녀’의 이원적 젠더구도로 드러나나 그 의미는 서지우의 폭력적 논리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푸르스름하고 가지런한 네 속눈썹 그들의 떨림, 맑은 물 고인 네 쇠골 속 우물, 오르락내리락 시소를 타고 있는 네 가슴의 힘찬 동력, 휘어져서 비상하는 네 허리의 고향을 나는 보고 느꼈다. 내가 평생 갈망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로망이 거기 있었고, 머물러 있으나 우주를 드나드는 숨결의 영원성이 거기 있었다. 네가 소녀의 이미지에서 ‘처녀’의 이미지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93쪽)

이쁜 여자를 보면 그 누나를 연상하는 게 내 평생의 습관이었다. 은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회고 반듯한 은교의 이마는 이미지에서 D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웃으면 잔잔히 접히는 눈가의 잔주름도, D를 떠올리면 매번 그 목소리가 들렸다. “이런 식의 폭력은 안돼!” 그 말은 결국 세상을 가로질러온 나의 나침반이 됐고, 내 평생의 중심 이데올로기가 됐다. (117쪽)

이적요에게 여성은 오직 ‘D’이고 그 외의 여성은 연애 대상, 소비적 여성이다. 그는 진정한 연애 성숙한 사랑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이적요의 ‘처녀’는 그가 열 살 때 평양 외곽의 과수원 지주 아들이라고 청년들에게 둘러 싸여 폭행을 당할 때 “이런 식의 폭력은 안 돼!” 라며 홀연히 나서

17) P.부르디외, 『남성지배』, 동문선, 2000, 73쪽.

피 흐르는 그의 머리를 두 손으로 안아 준 여자, 'D'이다. 모든 가짜, 위선, 관념 조작과 거리를 둔 생생한 생명의 저편에 'D'와 '은교'가 있다.

많은 논자들은 '은교'의 내면이 드러나지 않는 점과 은교가 지나치게 이상화 추상화 되었다고 지적하나<sup>18)</sup> 이는 이적요의 시선에 갇힌 은교의 이미지일 뿐이다. 실제로 박범신은 『은교』에서 고등학생으로 원조교제를 하는 영악한 '은교', 거칠게 말하면 창녀와 천사의 속성을 두루 지닌 채 자본주의 체제를 유연하게 횡단하는 문제적 여고생을 유감없이 창출했다. '은교'는 능률하게 자신의 시간을 사는 데, '은교'를 읽는 남성들의 상이한 시각은 제각각 이다.

이 소설은 회한에 가득한 노인 이적요의 시점이 지배적인 까닭에 '은교'의 실질이 중요하지 않다. 이적요는 은교의 정사장면을 목격하고도 둘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의 고유한 기억에 대한 훼손을 두려워하는 까닭인지 끝내 알려고 하지 않는다.

박범신이 창조한 '은교'는 분명 원조교제를 하는 고등학생이면서 동시에 대학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하는 '현실적인' 인물이다. 결코 처녀도 창녀도 아닌 포착 불가능한 여성이 은교이다. 이 소설이 '은교'의 내면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점과 남성 판타지가 결합된 여성서사라는 지적은 일면 타당하나, 이적요의 시점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적요가 그린 '처녀'는 단순하지 않다. 그의 '처녀'는 모든 이분적 이데올로기의 폭력 속에 몰린 '타자'를 담대하게 나서 감싸 안을 수 있는 존재인 까닭이다. 이적요가 경멸한 소음, 배신을 견어내고 진정한 발화를 한 자로, 이곳 현실에서 그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며 소통을 시도하는 자인 '은교'와 'D'의 이미지가 겹친다.

서지우는 여전히 연애와 향락의 주체는 젊은 남성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기 연민에 빠져 늙고 병든 스승의 상처는 간과한다. 아니, 더욱 획책한다. 이적요가 갖춘 문화적 능력을 질투하며 그의 작품을 탈

---

18) 각주 1번 참고.

취하고 그의 부재를 상상하며 위태롭게 배회하는 서지우와 늙은 스승 이적요, 두 남성의 동거는 불가능할 듯하다.

#### IV. 욕망의 윤리, 공존의 문화정치

부와 권력을 가진 늙은이에 대한 젊은이들의 질투는 사실 오래된 것이다. 노인들의 실제적인 부와 권력에 맞서, 사람들은 그들의 추함과 신체적 쇠약, 결점, 죽음이 가까운 불행한 상황을 강조했다. 노년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은 젊음과 아름다움을 숭배하는 세대의 무력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sup>19)</sup>

서지우의 이적요 훼손과 배제가 공간적 메타포로 재현됨은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서지우는 ‘이적요의 집 앞(공터)’, ‘은교 학교 부근’, ‘이적요 집 안마당’, ‘TV 매스 미디어’, ‘이적요의 반달이함’, ‘이적요의 서재’로 뻗치며 이적요의 공간을 훼손하고 그곳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한다.

서지우는 은교를 향한 이적요의 마음을 알고 경계하며 또한 그를 자극하여 고통에 빠뜨리고자 한다. ‘집 앞 공터’에 세운 차 안에서 그녀의 몸을 애무하다 이적요에게 목도된다. 두 사람의 관계를 숨긴 채 이적요를 조롱하려는 서지우의 계획적인 행위이다. ‘은교 학교 부근’에서 림살롱 지배인 노랑머리 F를 시켜 그를 “걸어 다니는 관”이라고 모욕한다. 이는 이적요에게 늙음의 대한 참혹한 자의식을 자극하는 사건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그는 수치심, 모멸을 느낀다. 수치심에는 죄책감,

19) 조르주 미누아, 박규현 김소라 옮김, 『노년의 역사』, 아모르문디, 2010, 418-423 쪽. 14-15세기 중세의 후사병은 젊은이와 아이만 잡아가고 노인을 피해갔다. 후사병의 선별적 피해는 또한 늙은 남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힘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아버지는 오랫동안 가장 노릇을 했고 재산 축적 기회, 시간, 세대 간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다.

당황, 유감, 양심의 가책, 굴욕, 후회, 치욕, 회한 등의 감정이 포함된다. 거기에 열등감(콤플렉스), 자기혐오, 분노, 억울함 등이 추가된다.<sup>20)</sup>

이 사건 이후 이적요는 집에서 나오지 않고 적요굴에 몸을 묻고 침묵에 잠긴다. 이적요는 멜랑콜리적-우울증적(melancolico-depressif)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 총체를 드러내는 데 한 개인에게 순간적으로 혹은 만성적으로 소위 말하는 흥분 상태의 편집증 단계와 매우 자주 번갈아 나타나는 억제와 기호 해독 불능증이라는 정신병 증후를 우리는 멜랑콜리라고 부른다. 낙담과 흥분 상태의 두 현상이 강렬하지도 빈번하지도 않을 경우, 우리는 신경증적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경우는 모두 똑같은 모성적 대상에 의한 불가능한 상의 슬픔을 드러낸다.<sup>21)</sup> ‘은교’를 상실했다고 믿는 그에게 이러한 증상은 예견된 것이다.

살폈듯이, 이적요에게 ‘은교’의 의미는 복잡하고 각별하다. ‘은교’는 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은교는 그 무엇보다 자신의 세대가 향유하는 ‘문화’를 이적요에게 나눠주고 몸עד 기입해준 문화 전수자이다. 이적요의 심장과 몸이 요동쳤던 순간도 은교가 ‘혜나’로 그의 몸에 문신(tattoo)을 심을 때이다.

서지우의 공격은 계속된다. ‘TV’를 통해 이적요를 겨냥하여, ‘70 가까운 늙은이의 본능’을 ‘본시창’(본능은 시궁창)이라며 ‘불능’이란 어휘를 사용하며 그를 모욕한다. 이에 앞서 그는 이적요의 ‘반달이 함’에 숨겨 두었던 그의 작품을 훔쳐 개악하여 발표한다. 이적요는 이에 “감히 처녀 같은 나의 영혼에게”라며 크게 분노한다. 서지우의 야만적 욕망노출은 멈추지 않는다. 대청소를 하던 대낮 ‘이적요의 집 안 마당’에서 은교의 윗도리를 올리고 가슴을 애무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그리고 마침내 이적요의 신성한 창작의 산실인 그의 ‘서재’에서 은교와 정사를 나누기에 이른다.

20) 김찬호, 『모멸감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문학과 지성사, 2014, 56쪽.

21) 줄리아 크리스테바, 김인환 옮김, 『검은 태양』, 동문선, 20쪽.

서지우의 범죄 앞에 이적요의 순결한 ‘처녀’ 의미가 증폭한다. ‘처녀’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그의 것을 의미한다. “발표한 것은 내 것이 아니지만 발표하지 않은 것은 온전히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뒤에도 세상 속에 나를 부활시킬 수 있는 새로운 단초가 될 가능성”(270쪽)이 그의 미발표 원작인 처녀이다. 이는 이적요가 서지우에게 건넨 자신의 처녀 같은 원고가 얼마나 깊은 애정과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대목이다.

서지우가 이적요의 섹슈얼리티를 전면 부정, 폄하하며 그를 단지 ‘늙은 남자’로 몰아간 것은 그를 ‘타자화’한 것이다. 서지우는 이적요를 ‘늙은 몸’으로 규정하며 그를 ‘적요굴’ 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 셈이다. 이는 ‘배신을 모르는 충직한 자’로 믿은 이적요의 신뢰를 전면 부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박범신 소설 『은교』는 늙은 남자 이적요의 욕망을 다룬 소설이 아니다. 욕망은 오직 젊은이에게만 허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늙은이가 감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불온한 것이 ‘성적 욕망’이다.

『은교』는 결국 세대, 노/소간에 나누고 공유할 수 없는 간극과 경계 분할을 전방에 내건 배제의 정치학을 내장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함은 이적요의 소외가 측근 서지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의 소외는 집 안/밖을 넘어 전반적이다.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활기찬 놀이터인 도시공간은 “룸살롱, 단란주점, 카페, 안마시술소, 고깃집, 모텔들을 배치하고 이어 다시 룸살롱, 단란주점, 카페, 안마시술소, 고깃집, 모텔들”로 준비한 ‘젊은 당신들’의 공간이다.

그런 까닭에 이적요가 마련한 은교와의 첫 번째 데이트는 참담하게 끝난다. 은교와 근사한 “카페촌 Z”에서 젊은 문화의 훈향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저녁을 즐기고 싶었으나 늙은이를 불편하게 느끼는 그들의 공간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데카당하고 달착지근한, 부식되고 있는 낯새’로 가득한 그곳의 젊은이들은 그가 앉으려는 모든 자리를 ‘예약석’으로 변하게 한다.

맞은 편 젊은 한 쌍이 키스를 하고 있었다. 그 옆자리 한 쌍은 부둥켜 안고 있다가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비로소 옷매무새를 고치면서 눈살을 와락 찌푸렸다. 그리고 보니, 이상한 시선으로 힐끔거리는 게 그들만이 아니었다. (274쪽)

“저 꼰대는 뭐야!” 내 귀에 그들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다. 홀 안에 암묵적으로 흐르고 있는 강력한 배타성을 나는 느꼈다.(275쪽)

이적요는 카페 안의 젊은 그들과 자신 사이에 ‘전쟁에서의 전선보다 더 삼엄한 경계선’인 ‘잔인한 금줄’이 쳐져 있음을 감지한다. 그들과 이적요의 사이는 넘을 수 없는 시간의 간극이 있음을, ‘은교’를 통해서도 절감한 것이다.<sup>22)</sup> 이적요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배려의 원칙과 인정의 원칙에 기반’하여 각자의 고유한 시간을 즐겼으면 한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중심과 주변을 구분하고 타자인 노인을 허위, 악, 비합리성, 비정상, 열등으로 억압하려 한다. 노인 이적요는 ‘인간’이라는 보편성과 동시에 개인적 특수성을 지닌 존재로 친밀한 사람들과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싶은 존재’일 뿐이다.<sup>23)</sup> 그는 진정한 타자이고 그가 원하는 것은 타자에서 그의 본래의 자리 주체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다.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주장에 의하면, 문화가 일상적인 이유는 문화 자체가 우리들 생활을 규정하는 공간과 공간적 실천의 일부분을 통하여 우리들 일상생활로 교묘하게 주입되기 때문이다. 문화는 영역(realm), 매개(medium), 수준(level), 지대(zone)와 같은 공간적 메타포로 정의된다고 한다.<sup>24)</sup> 『은교』의 공간적 메타포 즉 이적요 집 안팎의 훼손과 이적

22) ‘남성노인’의 소외감은 ‘여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심한 것으로 드러난다. 정미숙, 「오정희 소설과 노년 표상의 시점시학」,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4권 제2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3.

23) 악셀 호네트, 문성훈 외 역, 『정의의 타자』, 나남, 2009, 9-13쪽.

24) 돈 미첼, 류제현 진종현 정현주 김순배 율김, 『문화정치 문화전쟁』, 살림, 2011, 611쪽.

요 소외는 노인 배제의 문화정치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예문에서 보듯이 젊은이들은 카페, 찻집 같은 사이 공간(in-between space)<sup>25)</sup>마저 그들의 사적공간으로 전유하며 노인의 존재를 부정한다.

물론 이적요를 반기는 곳도 있다. ‘이적요 기념 사업회’는 그의 사후 평가를 대비해 분주하다. 그러나 이적요는 그의 기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기념관인 박물관(museum)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대상을 ‘박제화’하고 고립시키는 ‘묘지’(mausoleum)이다. 과거의 힘에 짓눌려 더 이상 현재를 살지 못하는 근대 문명인들에게 걸맞는 장소가 ‘박물관’<sup>26)</sup>인 까닭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세대와 경험의 간극을 허물고 함께 이곳에 공생 공존하는 것, 즉 문화의 나눔 향유이다.

은교를 만나면서 나는 보다 젊어지고 싶었다. 그게 죄인가. 그 애를 통해 아직도 생피처럼 더운 나의 욕망을 확인했을 뿐, 나는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나의 은닉된 욕망에게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자는 그러므로 나뿐이다. (281쪽)

시간에 따라 죽음으로 실러가는 게 존재의 공동운명일진대, 단지 도토리 키 재기 같은 그 서열에 의지하여 기고만장, 늙은이를 가리켜 ‘썩은 관’이라고 나팔을 불어대는 ‘범죄자들’에게 왜 내가 몰러 앉아 가슴만 쥐어뜯어야 한단 말인가. (282쪽)

이적요의 절망은 그를 늙은이라고 몰아대는 사시적 시선들에 있다. “이게 젊은 당신들만의 나라야!” 부르짖는 그의 절규는 자신의 순수한 욕망을 포로노로 만들어 버린 세상을 향한 것이다. 그가 은교에게 매혹되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듯 하며 순간적으로 성적 욕망을 품은 적이 있으나 그는 정녕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실로 단지 자신이 병들고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인 경멸과 무시 배척을 감내해야

25) 위의 책, 395쪽.

26)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258쪽.

만 했다.

은교를 사랑한 이적요의 욕망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인간은 기본적 자유를 지닐 권리를 갖는다. 윤리란 이러한 권리들을 수호하고 존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sup>27)</sup> 윤리란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선형적 능력이자 동시에 판단의 궁극적 원리, 특히 정치적 판단의 궁극적 원리로 간주된다. 이때 판단의 궁극적 원리란, 선형적으로 식별 가능한 악에 대항하여 명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선이라는 원리이다.<sup>28)</sup> ‘늙은 남자’는 섹슈얼리티와 어떠한 수행성도 갖지 못한다는 젠더 해제는 이데올로기이고 악이다. 이에 저항하는 것이 윤리이고 선이다.

라캉은 ‘자신의 욕망을 양보하지 말라’는 것을 윤리의 준칙으로 내세우면서 이 점을 건드리고 있다. 왜냐하면 욕망은 무의식의 주체에 구성적인 것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그리하여 ‘자신의 욕망을 양보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을 양보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히고,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국적으로 진리의 과정에 의한 자신의 포획을 양보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진리의 윤리학은 실상(le Réel)의 윤리학이다.<sup>29)</sup>

물론, 노년에 처한 이적요의 과오도 간과할 수 없다. 서지우를 파멸로 문 책임에서 이적요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끝내 서지우의 죽음이 이적요가 파는 함정 때문이 아님을 밝힌 작가의 의도는 이적요의 행위에 대한 완곡한 비판이라 생각된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비극에 내장된 근본원인에 대한 직시이다. 세대 간의 갈등과 노인 배제와 노인 폄하 문화에 대한 경계이다. 또한 노인 권력의 장기화, 과시적 표출도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서지우의 죽음으로 덮을 수 없는 것은 욕망의 윤리에 대한 공감이다. 서지우를 향한 이적요의 살해 본능은 타자의 욕망, 노인들의 ‘문화’에 배타적인 범죄자들 모두를 향한 ‘분노’이다. 이를 통해

27) 알랭 바디우, 이종영 옮김, 『윤리학』, 동문선 현대 신서, 2001, 11쪽.

28) 위의 책, 15쪽.

29) 위의 책, 66-67쪽.

우리는 배타적인 일상과 폭력사회의 경계를 넘어 소통과 공존의 문화지평, 욕망의 윤리학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 V. 나오는 말

본고는 박범신의 노년소설 『은교』를 ‘노년’과 ‘젠더’의 ‘문화정치학’의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생물학적 늙음을 기준으로 한 일방적 노/소 구분과 그에 따른 배타적 젠더 인식이 우리 일상의 삶 전반에서 작동하는 폭력적 ‘문화’임을 알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정치 감각을 가질 수 있었다.

노년에 처한 ‘이적요’는 아들 같은 제자 ‘서지우’를 위해 미발표 원고 ‘처녀’를 내어주며 등단을 시킨다. 이는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 가족 관계에 놓인 두 사람의 친밀함의 거래이자 범죄행위이다.

두 사람 사이에 ‘은교’가 매개되고 욕망에 사로잡힌 ‘서지우’의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두 사람은 스승/제자, 아버지/아들, 시혜자/수혜자의 친밀한 관계에서 주인/노예, 정신/육체, 늙은이/젊은이, 가진 자/못가진 자인 대립적 관계로 변질된다. 서지우는 ‘젊은 남성’ 젊음과 성적 향유라는 일방적 젠더 논리로 젊음/늙음, 서지우/이적요, 향유자/불능자, 아름다움/추함으로 재단한다. 자신의 정체를 이적요에 의지하고 있는 서지우는 그를 ‘늙은이’로 부정하고 그의 원고를 훔쳐 발표하는 범죄를 저지른다. 이에 이적요는 ‘처녀’라는 탈이데올로기 담지체를 호출하고 노인의 노회함을 다해 저항한다.

이적요의 소외가 심각한 것은 이것이 비단 서지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사는 젊은 도시 문화 전반에 퍼져있는 일상적 폭력이라는 데에 있다. 이적요의 훼손은 공간적 메타포로 진행되며 그를 ‘적요 굴’로 내몰아간다. 이적요의 살해의지는 이에 대한 저항이자 분노이며

역습이다. 『은교』의 전언은 분명하다. 세대와 노/소의 간극을 넘어 소통, 공존의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욕망의 윤리이고 진정한 문화정치라는 것을 이적요의 극단적 선택과 죽음을 통하여 작가는 역설하고 있다.

## 참고문헌

\* 텍스트는 박범신, 『은교』, 문학동네, 2010.

김은혜, 「영화 <은교>에 나타나 에로티시즘」, 한국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글로벌 문화콘텐츠학과, 2013.

김찬호, 『모멸감-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문학과 지성사, 2014.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백남문학사, 1996.

신종곤, 「영화 <은교>의 각색 연구 - 소설 『은교』를 원천이야기로 삼은 영화 <은교>의 변형적 각색 방식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8, 민족어문학회, 2013. 8.

유영희, 「영화 “은교”를 보는 한 가지 시선- 이적요의 소망, 세상에 굴복하고 삶이 무너지다」, 사고와 표현 5권 1호, 한국사고와 표현학회, 2012.

이미화, 「박범신 『은교』에 나타난 노년의 섹슈얼리티 연구」, 우리문학연구 40집, 우리어문학회, 2013.

이채원, 「(대중)소설과 (대중)영화가 당대의 사회규범과 소통되는 방식: 소설 『은교』와 영화 <은교>를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13권 4호, 문학과 영상학회, 2012.

이종영, 『성적 지배와 그 양식들』, 새 물결, 2001.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정미숙, 「오정희 소설과 노년 표상의 시점시학」, 『인문사회과학연구』 제 14권 제2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3.

최명숙,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홍유진, 「박범신 인터뷰 늙어도 젊은 것과 젊어도 늙은 것」, 인물과 사상 172호, 인물과 사상사, 2012.

- 돈 미첼, 류제현 진중헌 정현주 김순배 옮김, 『문화정치 문화전쟁』, 살림, 2011.
- 리처드 엘런 포스너, 정해룡 옮김, 『표절의 문화와 글쓰기의 윤리』, 산지니, 2009.
- 린다 허친, 김상구 윤여복 역 『패로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2.
- 볼프강 조프스키, 이한우, 『폭력사회』, 푸른숲 2010.
- 비비아나 A. 젤리아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옮김, 『친밀함의 거래』 에코리브로, 2009.
- 슬람미스 샤하르 외, 팻 테인 엮음, 안병직 옮김, 『노년의 역사』, 글항아리, 2012.
- 시몬 드 보부아르, 홍상희·박혜영 옮김, 『노년』, 책세상, 2002.
- 악셀 호네프, 문성훈 외 역, 『정의의 타자』, 나남, 2009.
- 알랭 바디우, 이종영 옮김, 『윤리학』, 동문선 현대신서, 2001.
- 앤서니 기든스, 권기돈 옮김,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새물결, 1997.
- NHK 무연사회 프로젝트 팀, 김범수 옮김, 『무연사회』, 용오름, 2012.
- 조르주 미누아, 박규현 김소라 옮김, 『노년의 역사』, 아모르문디, 2010.
- 조지 L. 모스, 이광조 옮김, 『남자의 이미지』, 문예출판사, 2004.
- 줄리아 크리스테바, 김인환 옮김, 『검은 태양』, 동문선, 2004.
- P. 부르디외, 『남성지배』, 동문선, 2000.
- 테드 W. 제닝스, 박성훈 옮김, 『데리다를 읽는다/ 바울을 생각한다 - 정의에 대하여』, 그린비, 2014.

<Abstract>

Cultural Politics of the Old Age and Gender  
- Focusing on Park Beom-sin's novel about the old  
age, 『Eungyo』-

Jeong, Mi-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cultural politics of the old age and gender by focusing on Park Beom-sin's novel about the old age, that is, 『Eungyo』. This novel represents tense power relations between an old man, 'Lee Jeok-yo' and a young man, 'Seo Ji-woo'. In the novel, incidents involving the two men and their truths are intervened in or revealed by another two characters, 'Eungyo' and 'lawyer Q'.

Relationship between Lee Jeok-yo and Seo Ji-woo changes over time from master/disciple, father/son or provider/beneficiary to master/slave, mind/body, the old/the young or the have/the have-not. Thus, the two men of same gender confront with each other. Despite he is a main protagonist, Lee Jeok-yo falls into being other person only because he is old and sick. In the novel, unconditional exclusion of old people blocks and isolates Lee Jeok-yo who has even more cultural capabilities and unique personality.

Park Beom-sin attracts attention to the otherness of old age by representing it with a character, Lee Jeok-yo who are very sensitive enough not to be just considered an old person. The novelist criticizes

---

\* Pukyung National University

there's a cultural mechanism in which dichotomy between the old and the young and exclusion of old people are taken for granted. This study sought to find solutions to the isolation of Lee Jeok-yo who goes beyond borders between anxiety and death and his will to kill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politics. This move would help directly understand the reality and desire of the old age and overcome the dimensions of prevalent exclusiveness and social violence against old people, newly establishing a cultural horizon in which communication and coexistence with old people and the ethics of desire for them are recognized.

Key Words : Park Beom-sin, old age, gender, spatial metaphor, desire, ethics, cultural politics

■ 논문접수 : 2014년 7월 15일  
■ 심사완료 : 2014년 8월 29일  
■ 게재확정 : 2014년 8월 30일